

올 추석 선물세트는 가성비 높은 '실속형'

청과·굴비 등 직거래로 저렴...5만원대 상품 10% 늘려

광주 유통업계 본 판매 돌입...요청 상품 맞춤형 제작도

광주지역 유통업계가 추석명절 선물세트 사전판매를 마치고 일제히 본 판매에 돌입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인 점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현상에 따라 실속형 상품 출시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지역에서 가장 빨리 사전예약에 나섰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1일 본 판매도 가장 일찍 시작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2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하면서 5만원 이하 품목을 대폭 늘렸다. 1인 가구의 소비경향이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를 중시하고, 김영란법 시행 첫 추석이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들을 모아 맞춤형으로도 제작해 실속을 쟁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 끼를 먹더라도 '있어 보이게' 먹길 원하는 이들의 트렌드에 따라 '서동 한우 스테이크'와 '유리피안 실속 크랩' 등 혼밥족을 겨냥한 상품들도 준비했다.

여기에 물량도 지난해보다 약 15% 늘렸다. 한우는 5% 증가한 500여 세트, 청과도 10% 이상 증가한 500여 세트를 준비했고, 건강은 20% 이상 증가한 1000여 세트를 마련했다. 올 봄부터 물량을 확보한 굴비도 전년 수준을 유지한 30여 세트를 선보인다.

(주)광주신세계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일간 지하 1층 식품 본매장에서 본격적인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 산지 직거래를 통해 엄선된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5만원대 실속형 상품 역시 10% 가량 물량을 늘렸다.

대표적 추석 산지 직거래 선물세트는 나주, 함평, 장흥 등 남도산지에서 직접 키운 한우가 있다. 1등급 한우로 구성된 '산지 한우 후레쉬 오복 세트'(28만원)와 '산지 한우 후레쉬 알뜰특호'(23만원) 등이 있고, 이외 10만원대 상품들도 마련했다.

청과, 굴비 세트 역시 산지 직거래를 통해 맞은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는다. '장성 사과 세트', '나주 배 세트'는 각각 11만원과 9만원대에 판매된다. 5만원대 상품인 '착한 사과 세트', '착한 배 세트'도 준비했다.

굴비는 18만원대 '수협 영광 범성포 특선굴비'(1.2kg·10피)와 90만원대 '수협 영광 범성포 볼굴비 특호'(2.4kg·10피)가 판매된다.

주류 세트로는 '쿨럼비아 크레스트 세트'(6만원)와 '몽페라 뽀빠유 세트'(9만원)가 판매된다. 이강주 명인이 우리 쌀과 물, 누룩으로 빚은 '술방 명인 이강주 술잔 세트'(7만8000원)와 '술방 진도 흥부 백주 술잔 세트'(5만원)도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도 오는 17일부터 추석 본 행사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가볍게 맥주를 즐기는 1인 가구를 노린 수입맥주와 가성비 높은 노브랜드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꾸렸다.

수입맥주는 스텔라 아르투아, 크롬버커 바이렌, 구스아일랜드 할리아 등 총 12종이다.



추석명절 선물세트 본 판매에 들어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고객이 지하 1층에 준비된 선물세트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벤기가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 트라피스트와 전용 잔으로 구성된 트라피스트 선물세트를 비롯해 미국의 벨라스트 포인트 스킨, 스페인의 이네딕담 등이다.

특히, 올 추석에는 한우와 과일, 생활용품 등 노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된 총 10종의 '노브랜드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

이며 대목을 노릴 계획이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시즌에는 특색있게 구성된 선물세트와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세트 구매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물량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0.18 (-5.29)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1)

↓ 코스닥 659.09 (-0.96) 환율 (USD) 1128.50원 (0.00)



랜드마크 도전 '상무지구 영무 예다음'

36층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436세대...내일 건본주택 오픈

한국토지신탁의 '상무지구 영무 예다음'이 오는 15일 건본주택을 오픈한다.

상무지구 영무 예다음은 서구 치평동 1220-3번지에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로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조감도>로 인근에 기아자동차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외 8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광주시청, KBS, 한국은행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와 높은 직장권 주거지의 근접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9㎡, 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 아파트 220세대와 전용면적 21~42㎡의 오피스텔 216실을 공급한다.

또 반경 약 500m 이내로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박스, CGV, 상무병원 등 생

활편의시설과 상업시설, 광주지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실수요자들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단지 반경 직선거리 2.3km에 유덕 IC, 4.1km 거리에 광주국제공항이 있으며, 5km내외에 KTX 승정역 및 광주역, 광주터미널이 있어 이동이 쉽고 빠른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자녀를 위한 탄탄한 교육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반경 1km 내에 운천초등학교와 계수초등학교, 동명중학교, 전남중학교, 상무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교가 갖춰져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건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능성동 482-4번지에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6300억원대 금호타이어 자구안...채권단 "구체성 결여"

자구노력 실패시 박삼구 회장 우선권 포기...채권단 다음주 주주협

금호타이어가 6300억원대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구체성이 결여돼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전날 중국 공장 매각, 유상증자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장 매각으로 3000억원, 유상증자로 2000억원, 대우건설 지분(4.4%) 매각으로 13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렇게 조달한 6300억원으로 채권단의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 자금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 130명을 구조조정하고, 공장 매각이나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이 실패할 경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

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체적인 틀은 박삼구 회장이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7월 채권단에 제안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채권단은 그러나 자구안의 세부 내용이 없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하면 누가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며 "자구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겠다 '제목'만 가져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은행은 전날 금호타이어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금호타이어 측에서

이날 오전 산업은행을 다시 찾아 자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이번 자구안은 이미 채권단이 한 차례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어서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예컨대 유상증자의 경우 유동성 지원을 명분으로 '알박기'를 하는 것으로 봤다. 금호타이어 지분이 하나도 없는 박 회장이 일정 지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지분은 채권단이 담보로 설정한 것이어서 채권단의 동의 없이 금호타이어가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중국 공장 매각의 경우도 차입금이 많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은 다음주 초 열리는 주주협의회에서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직장인 추석 경비 48만원

연휴 길어져 20% 늘어

올해 추석 연휴가 열흘로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은 올해 추석 경비가 작년보다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6~11일 미·기혼 직장인 1천349명을 상대로 추석 상여금과 예상 추석 경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추석연휴 직장인들이 쓸 것으로 예상한 경비는 평균 4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추석 경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복수응답)으로 부모와 친지 용돈(64.1%)을 꼽았다. 이어 부모님과 친지 선물(39.3%), 귀성 교통비(25.3%), 차례 상차림 비용(18.0%), 여행·여가 비용(16.2%), 추석빔 등 품위유지 비용(6.7%)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김치냉장고에 과일·채소 보관도 OK

삼성 '김치플러스' 출시

삼성전자는 김치 보관량은 감소하는 대신 다양한 식품을 전문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최근 수요를 반영한 신개념 김치냉장고 '김치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삼성 김치냉장고 자펠아삭 M9000' 시리즈 출시 이후 사용했던 '자펠아삭' 대신 '김치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 것이다.

김치플러스는 김장철과 같이 김치 보관량이 많은 시기에는 풀 메탈쿨링으로 ±0.3℃ 이내 오차 범위의 온도를 유지해 최적의 상태로 김치를 보관한다. 반면, 보관량이 적은 시기에는 열대 과일과 뿌리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변화해 김치 냉장고를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플러스는 기존 91cm에서 80cm로 너비를 줄였으나 내부 수납 용량은 기존 M9000 대비 17ℓ 가량 늘었다. 총 7가지 패턴에 584ℓ, 486ℓ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249~599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



www.hankooktea.co.kr

추석선물은 한국제다 명인이 만든 작열차로!

장성, 영암, 해남의 싱그러운 차밭을 모아 70년의 세월동안 녹차 본연의 맛을 추구한 한국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제 녹차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 HACCP 및 ISO22000 인증을 획득. 아시아나 항공기내 차납품으로 그 맛을 인증받았습니다.

올 추석에도 명인이 만든 명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한가위 Festival**

무지개 Set, 사계절 Set, 감사 Set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